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례 연구*

- 경남 학생사모의 연구·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for Boosting of Reading Education at School

- Focused on Research and Practice Activities of Gyeongnam

‘The Society for School Library’ -

김 수 경(Soo-Kyoung Kim)**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학생사모 활동을 통해 본 경남 학교 독서교육의 성과와 전망 |
| 1. 문제제기 | 1. 교육지자체 하 교원자생 단체활동 |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지속적인 연구 및 지식나눔 실천운동 |
| 3. 연구의 대상, 방법 및 한계점 | 3. 학교도서관담당교사와 사서교사의 연대 |
| II. 경남 학생사모의 운영 현황 | 4. 학생사모의 발전 계기와 전망 |
| 1. 경남 학생사모의 설립 배경 및 조직 현황 | IV. 결론 및 제언 |
| 2. 경남 학생사모의 실천활동 | |
| 3. 경남 학생사모의 연수 및 연구활동 |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은 경남지역의 학교도서관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이하 학생사모)의 독서교육 연구·실천 활동이며, 연구방법은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학생사모 회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 관련 문서, 홈페이지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학생사모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학생사모가 이룬 학교 독서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밝혔다. 향후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교 독서교육은 반드시 학교도서관과 연계되어야 하며, 학교 내·외의 조직과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학교 독서교육,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학생사모, 학교도서관담당교사, 사서교사, 경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for boosting reading education at school. Research object is research and practice activities of 'Society for School Library' at Gyeongnam area. Research method is case stud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interview with 'Society for school library' members through half structured survey, their documents and homepage site databas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activities of 'Society for School Library' were explored reading education's outcomes and prospects that performed impassionedly by them. It suggests ways for boosting of reading education at school that under any circumstances reading education at school must connect with school library and the necessity of ties and collaborations with organization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Keywords: Reading education at school, Reading education, school library, Society for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teacher, School librarian, Gyeongnam

* 이 연구는 2012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2012. 6.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창원문성대학 문헌정보과 조교수(ksk2012@cmu.ac.kr)

• 접수일: 2012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15일 • 최종심사일: 2012년 9월 21일

I. 서론

1. 문제제기

독서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상황은 다음과 같다.

장면 1 -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그 부조화 이야기: 학부모가 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들은 대체 뭐라 답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에, “아니 학교도서관에 독서교육이란 게 있어?”, “대출 반납 청소가 전부 아니?”

다시 몇 명의 엄마가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그럼.....이건가? 독서골든벨, 책나무 만들기, 북아트, 책선물하기, 다독상, 다독반상, 책바자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독서~교!육!!이라잖아~” 합니다. 다시 말해 그건 교육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도서관과 독서’ 라면 이해가 되나 ‘교육’ 이라는 말이 붙으니 학교도서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은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하여 그리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독서교육이라면 독서에 대해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때 뿐이야”, “되레 점점 더 싫어하네.” 어느 것도 지속적으로 책을 강제가 아닌 스스로 읽거나 즐기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¹⁾

장면 2: 아이들이 바라본 학교도서관 - 만화방(책도 없고, 시간도 없고, 교육도 없고...)

(아이와 엄마의 대화)

“철우야~ 바로 옆이 도서실인데 쉬는 시간에 거기 가서 책도 보고 빌려도 오면 좋겠다.”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도서실 가도 애들은 만화책만 봐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맨날 도서실에 가래요?(불만으로 가득 찬 불멘소리)” “.....” ²⁾

위의 두 장면은 독서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느낀 학교 독서교육 현실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장, 교사 모두 입을 모아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상 학력향상과 맞물려 필요할 때만 강조하고,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으로 인성

1) 제현경, “학부모가 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현실과 활성화 방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 자료집(2011. 12), pp.29-30.

2) 상계논문, p.31.

교육의 한 대안으로 독서교육을 말한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올해 ‘책읽는 경남’을 선포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독서교육 캠페인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와 온 사회에서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반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이래 독서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시간은 줄어들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도 책읽기와는 먼 생활을 한다는 보고이다. 또한, 최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국 초중고교생 65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서 책을 읽는 학생비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반면 중학생이 낮다. 중학생 29.4%는 ‘1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답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비율은 고교생이 25%, 초등생이 20.6%였다. 조사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진데다가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이 커지면서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³⁾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독서교육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 반면 정작 학생들은 책 읽기를 점점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매체환경의 다변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학력향상을 중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독서습관이 형성되지 않아 독서가 일상화되지 않는 개개인의 문화양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인가? 더구나 수많은 독서 담론 속에서 독서행위는 어디로 갔을까? 독서행위에 불을 지필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한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2년 올해는 ‘독서의 해’이다. 그래서인지 도서관을 비롯 독서 유관기관들에서는 ‘독서의 해’를 맞아 독서에 대한 담론 형성은 물론 여러 굵직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관련해서 독서에 관한 신문기사의 제목들은 “특수목적고나 대학 입학사정관제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이 강조되면서 독서경험이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 “입학사정관전형과 독서논술”, “입학사정관제와 독서이력”, “생활기록부와 독서이력” 등 대부분 1994년 대입전형이 수능으로 바뀌고 논술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교육부의 대학입시 정책과 여전히 연관되어 동일한 맥락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독서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차원까지 이르지 못하고,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진단과 평가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즉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나마 가시적으로 2003년 이후 정부가 나서서 진행한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일선 낙후된 학교도서관의 시설의 리모델링과 장서량을 대폭 늘리고, 사서교사를 전면 배치하지는 못했으나 각 지자체별로 학교도서관담당인력을 계약직 사서직원,

3) “청소년, 스마트폰에 빠져 책 더 안 읽어.” 경향신문(2012. 5. 8. 16면).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3권 제3호)

학부모도우미 등으로 채우며 학교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교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관건이며, 이는 학교도서관을 전담할 전문인력의 배치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학교도서관은 도서의 대출반납과 학교 내외부의 필독도서 및 추천/권장도서 제공, 다양한 이벤트성의 독서문화행사 그 이상의 역할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피교육자(학생), 교육과정(계획, 실행, 평가), 교육자가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자로서 교사들의 역할이 피교육자의 독서생활과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고 여기고, 교사(사서교사 포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지역의 독서 관련 교육연구와 실천사례를 면밀히 관찰,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독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⁴⁾ 또한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⁵⁾

3. 연구의 대상, 방법 및 한계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 현상은 독서문화행사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이 각 지역마다 크게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전국 규모로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에 연구의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생적인 교사조직인 경남지역의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학생사모)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학교도서관의 독서 실태에 대해서는 문헌연구를 한다. 학생사모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사모에서 생산된 자료 등을 분석하고, 학생사모의 핵심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학생사모의 연구·실천 활동을 다각적이고 세밀하게 관찰, 분석하는 질적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학교 독서교육의 주축이 되어야 할 학교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인 사서교사의 활동 사례라기보다 이들을 포함한 학교도서관담당교사들의 조직적 활동 사례이므로 학교도서관 기반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생사모라는 조직의 사례이므로 이 조직의 설립과 운영 특성 및 주요 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였으므로 이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제2조, 경상남도 조례 제3573호(2011. 2. 10).

5)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법률 제9470호 일부개정(2009. 3. 5).

II. 경남 학생사모의 운영 현황

1. 경남 학생사모의 설립 배경 및 조직 현황

1.1 경남 학생사모의 설립배경

가. 박종훈 전 교육위원과 학교도서관과의 인연

경남 학생사모가 설립된 배경에는 박종훈 전 교육위원의 의지와 당시 박위원의 의정활동을 돕던 '교육자치특별위원'의 일원이었던 조의래 선생님의 열정과 실천이 그 모태가 되었다. 여기서는 박종훈, 조의래 선생님과 면담⁶⁾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경남지역에 학생사모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박종훈 선생님⁷⁾의 교육위원 활동과 연관이 깊다. 박종훈 선생님은 2000년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맡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에 매일 일과를 하다 보니 주 2회 문을 열던 학교도서관을 자연스럽게 매일 열게 되고, 매일 열게 되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일상에 학교도서관이 자리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그리 깊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학교도서관과의 인연으로 박종훈 선생님은 2002년 교육위원 출마를 결심하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뜻을 두었다. 그가 당선되면서 2003년부터 시행했던 정부의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었고 경남지역의 학교도서관활성화 사업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사모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2003년 경남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사업에 '미국 동부지역 선진도서관 탐방 프로그램' 사업이 선정되면서 공모에 참여한 학교도서관담당교사 10명과 지도교수로 창원전문대학 양재한 교수가 이론적 지원을 하며 참여하고, 박종훈은 교육위원 자격으로 미국의 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다녀오고 나서였다. 미국 선진 도서관을 시찰하고 와서 그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하게 되었고 8년간의 교육위원 활동 기간 동안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박종훈은 당시 교육계의 사회적 합의와 의사소통 통로로서 교육위원회 활동과 이를 도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 2004년에는 경남교육포럼을 설립하게 된다. 경남교육포럼으로 인해 경남지역의 교육 현안과 그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일반 시민들과 교육계 인사들과 보다 폭넓게 실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남교육포럼은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우리 도의 교육 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교육 주체간

6) 박종훈 선생님과 면담은 2012년 5월 7일, 조의래선생님과는 5월 17일에 이루어졌다.

7) 8년간(2003-2011년) 경상남도 교육위원 역임. 현재 경남교육포럼 공동대표 및 창원문성대학 초빙교수.

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경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⁸⁾으로 설립된 단체다.

학생사모는 박중훈 교육위원 활동 및 경남교육포럼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학교 내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펼칠 수 있는 모임의 필요에 의해 2003년 ‘미국 선진도서관 탐방’ 팀에 참여했던 학교도서관담당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2004년도에 준비 모임을 거쳐 2005년에 연구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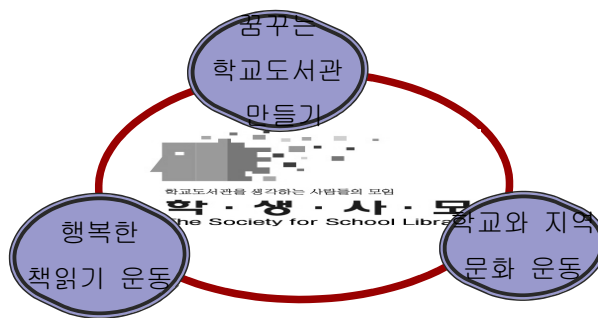
나. 조의래 선생님과 학생사모의 정신

박중훈 교육위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학생사모의 설립 계기였지만, 학생사모의 직접적인 동기는 일선에서 학교도서관담당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몇몇 교사들의 의기투합이었다. 그 주축이 조의래 선생님이었다. 2003년 미국 선진 도서관을 탐방하고 와서 “이 땅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도서관 환경에서 맘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은 학교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아졌다. 2004년 당시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4명의 선생님(이동립, 조은영, 최경립, 권영복)과 뜻을 같이하고 이어 이러한 뜻에 동의한 김은수(중등), 손은경(초등) 선생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7명으로 모임을 출발하게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학교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내용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자’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었다. 2004년 준비 모임을 거쳐 그 이듬해인 2005년 7명 주변에 뜻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이 동참하게 되어 회원 35명으로 2005년 4월 10일에 연구회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다.

모임의 명칭을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한 이유는 누구나 학교도서관과 책 읽기에 관심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조직을 하자는 의미였다. 학생사모의 취지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좋은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도서관의 내실화와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실천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학생사모는 3가지 실천 운동, 즉 ‘학교도서관 운동’, ‘독서교육 운동’, ‘문화운동’을 표방한다.⁹⁾

학생사모의 로고와 조직 방향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생사모 로고 및 정신

8) 경남교육포럼 홈페이지, <http://www.gnef.org/bbs/board.php?bo_table=bbs01_02> [인용 2012. 5. 14].

9) 학생사모 홈페이지, <<http://edunpark.com/>> [인용 2012. 5. 18].

1.2 학생사모 조직 현황

2012년 현재 학생사모는 대표 1인(이동림), 자문위원 2인(박종훈 전 경남 교육위원, 양재한 교수), 사무국장 이하 22인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결성 당시 단일 조직이었으나 2012년 현재, 사업은 7개 지역별(창원, 김해, 진해, 마산, 거제, 밀양, 양산)과 학교급별(초등, 중등), 사서교사모임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공부는 각 소모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결성당시는 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부하였고, 2006년부터 8개 소모임(3개 그림책-창원, 김해, 진해/ 2개 도서관활용수업-초등, 중등/ 2개 북아트-창원, 김해/ 1개 사서교사 모임)이었으나, 2012년 현재 13개 소모임, 즉 6개 그림책-창원, 김해, 진해, 마산, 거제, 밀양/ 도서관활용수업-초등, 중등/ 2개 북아트- 김해, 양산/ 책놀이(초등)/ 서평(초등)/ 독서토론(초등/ 중등)/ 사서교사(초등/ 중등)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학생사모는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¹⁰⁾의 경남지역모임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경남교육포럼의 분과, 전국교직원노조 참교육실천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 회원은 500명 내외,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소모임 중심의 120명 내외이다.



<그림 2> 학생사모 홈페이지

2. 경남 학생사모의 실천활동

학생사모는 3가지 실천운동, 즉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문화운동 영역이다. 이러한 영역별 실천

10)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의 희망을 발견한 교사들이 서울, 인천, 대구에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2001년 서울, 인천 지역 10명 남짓한 학교도서관담당교사들이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독서교육과 모든 교과와 주제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을 결성하게 되어 현재는 10개 지역모임(서울, 경기, 강원, 인천, 대구,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이 만들어졌으며 6개 지역(부산,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제주)에는 모임을 준비 중이다. 도서관 전산화나 운영을 위한 정보교류와 지원을 위하여 인터넷 상에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교사들(<http://cafe.daum.net/libte>)'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2012년 현재 18,000여명이 넘는 가입회원과 약 3,500명에 달하는 학교도서관담당교사들이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홈페이지, <<http://schoollibrary.eduhope.net/bbs/>> [인용 2012, 5, 18].

운동을 독서교육, 도서관운영, 공부 소모임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독서교육 실천 사례

학생사모의 독서교육활동은 초등학교 회원 교사는 담임업무, 학교도서관담당교사 업무와 중등학교 회원교사는 교과(주로 국어과)교사업무, 학교도서관담당교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학교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교육, 학급 단위에서 독서교육과 주로 국어교과와 연계된 독서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들은 학생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공유한다. 온라인상 독서교육 자료영역으로는 10분 독서운동, 학년별 권장도서, 어른권장도서, 독후활동, 독서지도자료, 황금글귀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공유되고 있다. 학년별 권장도서로 초등(저/고),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으며 초등교과연계도서목록, 학생사모에서 원하는 그림책목록, 어린이도서연구회의 권장도서목록, 아침독서 목록 등이 소개된다.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는 것은 독서지도자료로 회원들이 직접 활용했던 독서지도자료나 참고할만한 독서지도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2.1.1 초등분야 사례

초등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생님은 조의래, 이동림, 최경림, 손은경, 조은영, 김정숙, 박춘배, 이현정 선생님 등이다. 이 중에서 손은경 선생님의 <1학년 독서습관형성사례>¹¹⁾ 속의 독서교육 활동을 살짝 엿보면 다음과 같다.

1) 매일 ‘그림책’ 책읽어주기

- “책읽어주는 선생님 책달력” 걸어두고 읽어준 책 제목 써나가기
- 학급 홈페이지에 그날 읽어준 책의 정보와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쓰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처음에는 교사가 책을 골라 읽어주지만,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책을 가져오게 된다. 신기하게도 재미있는 책을 잘도 골라 온다. 어느새 아이들도 저 모르게 책을 보는 눈이 생긴 것이다. 아이들 덕분에 미처 읽어보지 못한 좋은 책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날은 서너 권이 모여 미안해하며 다음으로 미룬다. 행복한 비명이다.

2) 아침 10분 독서

- 1학년 도서관 이용교육, 대출증 발급

11) “1학년 독서습관 형성”을 할 때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은 크게 5가지를 들고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손은경(김해대곡초등학교 교사), “애들아, 책이랑 놀자! : 1학년 독서지도사례,” 학생사모 홈페이지 독서지도사례 게시글, <<http://www.edunpark.com/>> [인용 2009.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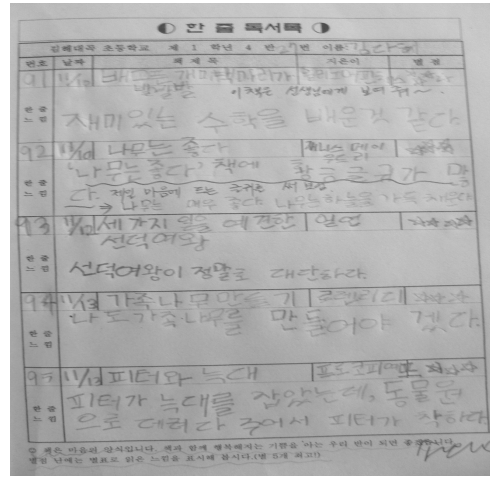
이제부터 8시 45분부터 10분 동안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아침마다 책을 읽을 거니까, 도서관에 자주 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오라고 당부했다.

3) 학급문고를 넘어 주 1회 선생님과 함께 도서관 가기

4) 독후감 쓰기의 부담 벗기

- 1학기동안은 책을 읽고 나서 이야기 나누기
- 2학기부터 “한줄 독서록” 쓰기

말 그대로 책을 읽은 다음 한줄 느낌을 쓰는 양식인데, 다행히 아이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다. 1학년인데도 예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한 줄 느낌을 잘 잡아 쓴다. 집에서 틈만 나면 책 읽느라 정신이 없다는 학부모님 말에 하루에 두 권 이상은 쓰지 않도록 제한을 두었을 정도다. 한 장(다섯 권)을 다 쓰면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와서 나에게 보이도록 하는데, 한줄 독서록에 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은 느낌글을 어떻게 쓰는지 빠르게 배웠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었다. 책에 따라 최고 다섯 개의 별(점)을 주는데, 처음엔 대충 하는 듯 했으나 정말 자신이 재미있게 읽은 책에 신중하게 별점을 주었다. 물론, 그것마저도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에게는 내가 읽어주는 책이름만 써보도록 했다.



〈그림 3〉 한줄 독서록-A4

5) 나부터 즐기자 = 교사소모임

-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책 읽기 세 가지 원칙

첫째, 책읽어주기(“좋은 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부담없이 책읽기로 이끄는 첫단추), 둘째, 10분 책읽기(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책 읽는 시간 확보, 자연스럽게 독서습관 형성 방법), 셋째, 도서관에 함께 가기(여전히 책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직접 물가(도서관)에 데려가는 일과 도서관이 학교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 심어주기)

이 원칙에도 한 가지 더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교사가 책읽기를 즐겨 하고 어린이 책의 매력에 빠져드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혼자서 하기 보다 뜻이 같은 교사들과 함께 소모임을 만들어 실천을 나누고 서로 배우면 금상첨화이다. 나 역시 “학교도서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www.edunpark.com> 학생사모)” 선생님들과 금요일마다 모여 아이들 책을 읽으며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4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혼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얻고 토론하면서 내 교직의 존재 이유를 찾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는 학급을 중심으로 독서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손은경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들과 1년 동안 지도했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이에서 보듯이 먼저 선생님이 책에 익숙하고 독서를 즐기며, 이를 아이들과 기꺼이 나누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 지속적인 책읽기 이끌며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형성해 가는 모습이 참 즐거워 보인다.

2.1.2. 중등분야 사례

중등분야에는 김은수, 이금희, 안미현, 김혜선 선생님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중 다양한 독서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어교사 김은수 선생님의 독서교육 활동을 간략히 소개¹²⁾하고자 한다.

1) 사제동행 독서동아리

학교도서관 독서동아리는 도서관 도우미 역할을 하며 매월 2회 독서토론회에 참여하고 -방학 중에는 연합활동으로 저자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독서캠프(여름방학, 경남교육포럼 주관), 문학기행(겨울방학, 경남교육포럼주관)에 참여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제동행 독서동아리에 당선되어 만들어진 독서동아리의 주요 활동이다. 이에 대해 김은수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학기 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방학 중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독서캠프와 문학기행에 참여하여 다양한 독후활동을 공유하여 개인의 독서체험이 지니는 한계를 벗어나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하여 독서활동의 지평을 넓히는 독서문화를 만든다. 학생들은 신나게 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도서관 도우미가 되어 귀찮은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회원들은 학교 내에서 자부심이 대단하다.(중략)

이렇게 활발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동력에 대해 김은수 선생님은 학생사모의 활동을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동아리 담당교사 혼자 힘으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8년전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초·중·고 교사와 사서교사들이 모여 만든 교원자생단체(학교도서관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학생사모)로 주1회 교사공부모임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동아리 운영에 별 어려움이 없다.

12) 김은수(김해 임호중 국어교사), “독서토론의 실제 : 월드카페 방식”이라는 글에서 요약·발췌(학생사모 홈페이지 독서지도사례 게시 글, <<http://www.edunpark.com/>> [인용 2009. 4. 4]). ; 김은수, “사제동행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사례 :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2) 수행평가를 통한 독서교육

...(중략)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독서는 국어교사의 몫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국어교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양을 넓히고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길러줄 수 있는 좋은 책을 선정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 국어 수업 시간만으로는 다양한 읽기를 하기가 어려우므로 독서지도를 '수행 평가'라는 활동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 수행 평가를 중심에 두다 보면 교과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교과 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국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책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 비율을 70:30으로 한다.(하략)

3) 학교 밖에서 실천하기

학생사모 활동으로 경남교육포럼과 연계하여 여름방학에 독서캠프(1박2일), 겨울방학에 문학기행(1박2일)을 실시하며,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책 읽는 밤'을 2008년에는 창원도서관에서 주관, 2010년에는 김해도서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중등교사로서 김은수선생님은 학교 안에서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면서 독서토론동아리를 지도하고, 국어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 밖에서는 경남교육포럼과 연계하여 독서동아리연합활동을 펼치고 또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독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

수년간 학교 내외에서 독서교육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김은수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소박하게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욕심만 앞서 여기저기서 나타난 다양한 방법을 모두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은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과 비슷하다. 각자의 교육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하여 응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독서교육은 어느 한 교사의 노력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가 할 일을 구분한다면 하기 어려운 일이다. 교사끼리 긴밀한 연관(혹은 학년끼리) 속에 독서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태도나 결과물 등을 가지고 의논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고 해야 할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다 좋은 교사, 나은 교육을 위해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동료 교사와 함께 해나길 당부한다.

2.2 토요 휴업일 동아리 활동

학교 현장에서 토요 휴업일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 학생사모 회원교사들은 동아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2006~2008년까지 토요 휴업일에 동아리활동을 펼쳤다. 2006~2008년까지 창

원 용호초등학교에서는 매 토요일 휴업일에 '그림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2006년~2007년 창원 성주초등학교와 2008년 창원 대원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아트 클럽'을 열었다.

2.3 도서관운영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교사로서 도서관 운영은 상당히 부담이지만 보다 풍부한 수업 자료로 아이들과 만나 알찬 수업을 일구기 위해서는 좋은 도서관 환경은 필수라는 것을 학생사모 회원 교사들은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등에서는 하루에 4-5시간 이상 담당 교과수업을 하고, 초등에서는 담임을 하면서면서 혼자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허세라 할 수 있다. 이에 학교도서관담당교사들은 도서관운영에서 협력과 연대는 필수라 할 수 있다.

학생사모에서는 도서관만들기, 도서관 인력관리로는 학부모도우미 교육 및 활용관리와 도서부관리 등의 자료를 공유한다.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절차와 자료들을 공유, 도서관 학부모도우미 교육자료 및 관리에 필요한 서식들을 나누며, 도서부 학생들 관리 자료들을 함께 공유한다.

2.4 지역과 연계된 독서문화운동

2.4.1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독서교육의 법적·제도적 방안 제시

지난 2009년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자 했던 '독서인증제'를 학생사모는 학부모·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각 언론사들에 보도자료 보내기, 언론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폐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경남교육청에서 2010년에 「경상남도 학교 독서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공시하여 의견서 제출을 제안하였을 때, 학생사모는 당시 대표 김은수 선생님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한국학교도서관협회 경남지역 사서교사협의회에서도 황혜란 사서교사(학생사모 활동가)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의래 선생님도 개인 교사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들이 지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이다. "1) 조례(안)의 학교독서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학교독서교육의 중심에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2) 조례(안)의 독서교육종합시스템 구축·운영과 독서활동관리제는 독서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학교 독서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을 강제가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4) 매년 독서교육에 관한 계획과 시행을 학교평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이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경남 교육청에서는 2011년 2월 10일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경상남도 조례 제3573호)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도서관과 연계도 없이, 학교 독서교육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나 독서인증제를 도입하여 관주도의 전시행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될 뻔 했던 법제를 막아낸 중요한 정책 참여 운동이라 할 수 있다.

2.4.2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문화 활동

‘독서의 밤’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행사로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창원과 김해 공공도서관에서 주관하고 학생사모에서 진행한다. 이것은 초등과 중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회 학생들이 50여명이 참여하고, 평일 저녁 6시~10시까지 진행된다. 정해진 책을 읽고 다양한 책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좀더 발전하여 2011년에는 김해교육청에서 농산어촌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도서관추적놀이’가 진행되었다.

2.4.3 기타 지역단체와 연계한 독서문화 활동

1) 김해시와 연계한 1318 청소년(중·고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읽기 릴레이 강좌

김해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사모에서 실행을 한 책 읽고 저자와의 만남을 갖는 연간 행사이다. 교사모임에서 읽었던 책을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의 독서동아리들과 매주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이다. 월1회 이러한 독서토론 학교동아리들이 모두 참여하는 저자초청 강연을 개최하여 인문학 책 읽기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김해시와는 2008년 ‘김해의 책 북콘서트’를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2) 경남교육포럼과 연계한 독서캠프와 문학기행

경남교육포럼에서 주관하는 여름 독서캠프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도 실시하며, 초등 저/고, 중학생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독서캠프를 진행한다. 2009년부터는 겨울 독서캠프도 열어 1박 2일 문학기행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경남 학생사모의 연수 및 연구활동

3.1 학생사모의 교사 대상 연수활동

2005년도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공부하였다. 2006년부터 공부소모임이 생기면서 1달 단위로 정기연수회를 개최하게 된다. 소모임공부는 매주 2시간씩 이루어지며, 소모임활동의 사례발표를 월 1회 정기연수회에서 발표한다. 대체로 월1회 개최되나 해가 거듭될수록 조직이 커지면서 분기별, 학기별 1회씩 정기연수회를 개최하게 된다.

2006년부터 경남교육감 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학생사모에서 주관하게 되어 매년 2회의 30시간씩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실시한 직무연수의 내용은 아래와 <표 1>과 같다.

〈표 1〉 학생사모 직무연수 내용

| 연도 | 연수명 | 이수자수 | 연수장소 |
|--------|-------------------------|-------|----------------|
| 2006 | 학교도서관에서 재미있게 공부하기 | 67명 | 창원도서관 |
| 2007 | 학교도서관에서 즐기기 | 89명 | 창원도서관 |
| 2007-1 | 학교도서관에서 놀자, 학교도서관에서 배우자 | 87명 | 창원도서관 |
| 2007-2 | 도서관과 친해지자,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 82명 | 창원도서관 |
| 2008-1 | 도서관에서 희망을 만들자 | 100여명 | 창원도서관 |
| 2008-2 | 도서관에서 행복하게 책임자 | 100여명 | 창원도서관 |
| 2009-1 | 책과 도서관! | 100명 | 창원도서관 외 10곳 |
| 2009-2 | 책과 도서관! | 80명 | |
| 2010-1 | 미래를 준비하는 책, 배움이 있는 도서관 | 90명 | 창원도서관 외 9곳 |
| 2010-2 | 미래를 준비하는 책, 배움이 있는 도서관 | 90명 | 사파초 도서관 외 8곳 |
| 2011-1 | 도서관활용수업1 | 119명 | 부산대 밀양 캠퍼스 |
| 2011-2 | 도서관활용수업2 | 119명 | 수남초 시청각실 외 12곳 |
| 2012-1 | 삶과 인문학 | 76명 | 김해덕정초 |

3.2 학생사모의 연구활동

학생사모는 공부소모임이 활발한데, 이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를 보다 많은 교사들과 나누기 위해 경상남도 교육청의 교사연구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사모가 개발한 도서관활용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차례 총 10차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사업에 참여한 결과 나온 자료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학생사모 연구물 목록

| 연도 | 자료명 | 자료내용 | 분량 |
|--------|----------------------------|----------------------------|-------|
| 2007-1 | 학교도서관에서 재미있게 수업하기 | 초등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 | 300여쪽 |
| 2007-2 | 학교도서관에서 신문으로 교과와 문화의 맥락 읽기 | 중등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 | 200여쪽 |
| 2008-1 | 도서관에서 책 만들며 놀자 | 북아트를 활용한 도서관 활용수업 방법 제시 | 160여쪽 |
| 2008-2 | 정보매체 활용을 통한 도서관 활용 수업 | 사서교사들의 정보매체활용수업 방법 제시 | 200여쪽 |
| 2009-1 | 그림책으로 열어가는 도서관 활용 수업 | 도서관 활용수업 방법 제시 | 300여쪽 |
| 2009-2 | 함께 책임기를 통한 책임기문화 확산 프로그램 | 책임기 문화와 함께 사유하고 토론하는 방법 제시 | 200여쪽 |
| 2010-1 | 즐거운 학교도서관 신명나는 책 놀이 |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을 놀이로 접근하는 방법 개발 | 150여쪽 |
| 2010-2 | 책 만들며 커가는 아이들 | 북아트를 활용한 도서관 활용수업 방법 제시 | 150여쪽 |
| 2011-1 | 소통과 교감의 독서토론 | 독서토론 방법과 과정 제시 | 150여쪽 |
| 2011-2 | 독서를 통해 배워가는 진로교육 | 독서로 하는 진로교육 방법 제시 | 150여쪽 |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학생사모의 연구활동으로 나온 결과물인 연구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연수를 열어 연구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 연구물들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실제 참여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실행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2010년에는 북아트활동 관련 책¹³⁾을 출간하였다.

Ⅲ. 학생사모를 통해 본 경남 학교 독서교육의 성과와 전망

1. 교육자치제 하 교원자생 단체활동

학생사모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참교육>¹⁴⁾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아이를 살리고, 교육 현장을 살리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교육 시설중의 하나가 '학교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한 교사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하여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이라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지금의 학교도서관과 같이 지평이 넓지 않았던 1997년에 한 연구논문¹⁵⁾에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학교도서관을 이야기하는 주체로 문헌정보학자와 사서교사 이외에 정부관료, 정치가 집단, 전교조 교사와의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했던 이들의 혜안과도 맞닿아 있다. 즉 이들은 "학교도서관문제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핵심 고리로서 강조하고 인식시켜 교육개혁운동을 전개하는 전문직 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전략일 것이다."라고 주창하였다. 이들의 주장이 드디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학생사모는 초기 7명에서 시작하여 7년여 지난 현재는 온라인 회원수는 500~600명 정도(초등 300~400명, 중등 150명, 일반 50명)이며, 실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은 주로 소모임별로 활동하며 그 인원은 120명 전후로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성장하였다. 물론 경남지역의 3만3천여 명의 교원수에 비하면 2%도 채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이들이 경남의 학교 독서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이 확대된 데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 공립학교 교원의 특성상 3~4년마다

13)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경남모임, 즐거운 북아트교실(서울 : 우리책, 2010).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교육'이란 다시 민족주의 교육, 민주주의 교육, 인간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핵심적인 내용은 1989년 5월 28일에 결성된 <창립선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참조. 전교조 홈페이지 창립선언문, <<http://www.eduhope.net/introduction/declaration.html>> [인용 2012. 5. 20].

15) 김정근·김종성, "현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1997. 9), p.41.

순환근무를 하므로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모임을 만들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는 창원, 김해, 진해, 마산, 거제, 밀양, 양산, 고성 등에 15개 정도의 소모임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제정과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및 ‘독서이력철’ 도입 거부 운동에서 보인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이후 학교 독서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생사모의 활동은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환경을 개혁하는 데 교사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라 여겨진다.

2. 지속적인 연구 및 지식나눔 실천운동

학생사모 공부모임의 원칙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평생한다, 매주 공부한다, 배운 것을 동료교사와 학생들과 나눈다, 더불어 공부한 것을 개인의 성과로 만들지 않는다, 즉 승진에 활용하지 않는다”¹⁶⁾이다. 따라서 2004년 준비모임부터 현재까지 매주 공부모임을 빼놓지 않는다고 한다. 이 공부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임을 진행한다고 한다. 1) 이론서 읽고, 발제자가 발제하기, 2) 이론서에 제시된 관련 책들을 발제자가 준비해서 소개하기, 3) 아이들과 책을 나눈 후 아이들의 반응들에 관한 경험 나누기, 4) 정보 및 소식 공유하기이다.

이렇게 매주 공부한 결실들이 10개의 연구보고서와 단행본 한권으로 발간되었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연계, 협력하여 활발한 독서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이제는 몇몇 학생사모 선생님들은 독서의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되었다. 즉 그림책분야에서는 조의래, 이동림 선생님, 독서토론 분야에서는 김은수, 최경림 선생님, 참신한 독서지도 활동은 최경림, 조은영, 김정숙, 손은경, 박춘배, 황승욱, 이현정 선생님, 또한 경남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자생적 교사연구모임인 학생사모에 대한 전파는 조의래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다.

3. 학교도서관담당교사와 사서교사의 연대

학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도서관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미비한 배치이다.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미배치는 학교 독서교육의 지속적·체계적·질적인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의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사업의 결과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2003년도 말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전국 9,649개관(93%)에서 2011년 4월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전국 11,461개관(95.7%), 경남지역 946개교(95.9%)에 이르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학교도서관 운영을 전담할 사서교사의 낮은 배치율이다. 2003년말 현재 사서교

16) 조의래 선생님과의 면담(2012. 5. 17).

사 배치율은 전국 217명(6.6%), 경남 3명(0.01%)이었고, 2011년 4월 1일 현재도 전국 702명(6.1%), 경남 40명(0.12%)에 지나지 않아 반쪽짜리 학교도서관 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인력은 대체로 사서교사(기간제 사서교사 포함), 담당교사(겸임일반교사), 계약직 사서(비정규직 일반사서), 자원봉사자(학부모 등 학교도서관도우미)로 구분할 수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2011년 4월 1일 현재 사서교사 40명, 사서직원(사서교사를 제외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수) 184명이며, 1관당 사서직원수는 0.19명이다. 1관당 사서직원수가 전국 평균은 0.36명인데 비해 경남지역의 도서관 직원수는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담인력 배치율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아직도 경남지역에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가장 핵심 지원세력은 학생사모 교사들이 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협소하고 고립된 사서교사의 위치와 교육계 내에서도 변방의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학생사모와 같은 자생적인 교사조직이야말로 사서교사 배치와 학교도서관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지원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점도 있다. 사서교사는 수적으로, 교사 경력 면에서 열세이고 더구나 지역별로 멀리 떨어져 있어 힘을 결집하고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현재 학생사모 활동에서 주축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사서교사는 학생사모 내에서 하나의 소모임에 지나지 않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대외적으로 학생사모와 같은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면 사서교사 무용론으로 자칫 전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학생사모의 발전 계기와 전망

여기서는 학생사모에서 부문별로 핵심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¹⁷⁾과의 서면 혹은 대면 면담을 통해 얻은 견해들을 질문에 따라 답변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4.1 학생사모에 참여하게 된 동기

초기 학생사모 회원이었던 선생님들(조의래, 이동림, 김은수)은 앞서 학생사모 설립배경의 동기와 동일하다. 이 중 이동림 선생님의 의견과 이후 학생사모 활동을 하게 된 황혜란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7) 초등활동에는 이동림선생님(현재 학생사모 대표, 현 진해안골포초등학교 교사, 2012. 5. 17일 면담), 중등활동에는 김은수선생님(2009년~2011년 학생사모 대표 역임, 현 김해대청중학교 국어교사, 2012. 5. 6. 서면 면담), 사서교사 활동에는 황혜란선생님(현재 학생사모 사무국장, 현재 창원중앙여고 사서교사, 2012. 5. 4 면담), 조직 및 전국활동에 대해서는 조의래선생님(2005~2008년 학생사모 대표 역임, 현 김해덕정초등학교 교사, 2012. 5. 17)과 면담을 하였다. 질문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은 제외한다.

교사는 혼자서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믿었고, 함께 살아야 교사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는 학생사모가 좋은 교사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공부와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다(이동림 선생님).

2007년 사서교사로 발령받고 첫 연수를 하고 학생사모 회원들이 환영식을 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학생사모 활동을 하지는 제의를 해서 자연스럽게 학생사모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07년 이전에 발령 받았던 선배 사서교사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사모에서 챙겨주어서 경남지역의 모든 사서교사들이 학생사모 회원으로 활동한다(황혜란 선생님).

경남지역의 사서교사는 2003년까지는 1명의 사서교사¹⁸⁾만 있다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신규 임용¹⁹⁾이 되어 2011년 4월 1일 현재 40명의 사서교사가 있다. 따라서 2004년부터 신규 임용되었던 사서교사들은 학생사모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학생사모에 가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4.2 학생사모의 전국적 위상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경남지부이며, 조직이 건실하게 잘 꾸려지는 지역이라는 전국적인 평판을 듣는다(황혜란 선생님).

학생사모의 공부소모임을 모델로 꾸려진 전국 모임으로는 전북지역의 동화홀씨 등 여러 곳이 있다(조의래 선생님).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전북은 성희옥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사동아리, 교사와 학부모 연수, 책사회의 책날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진보 교육감이 수장을 맡아서 학교 교육 정책에도 관여합니다. 강원도도 역시 진보교육감 지역이고, 한명숙 선생님이 주축으로 교사 동아리와 연구, 실천을 활발히 하고, 교육감의 정책팀에도 들어가서 활동합니다. 인천은 이성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활발하고 중등이 중심이 되어 독서문화 체험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서울지역은 백화연 선생님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하며, 출판중심의 활동을 하는 데, 벌써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²⁰⁾

이처럼 학생사모는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의 경남지부로서 공부소모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견실한 지역모임 중의 하나라는 할 수 있다.

18) 이 분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교련교사였다. 2011년 8월에 퇴임하여 2012년 5월 현재 경남의 공립학교 사서교사는 39명이다.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2012년 현재 사서교사가 44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기간제 사서교사 5명을 합산한 수이다(황혜란 사서교사와 면담).

19) 2004년 2명, 2005년 2명, 2006년에는 11명, 2007년 11명, 2008년 9명, 2009년 4명이 신규임용되었다.

20) 이동림 선생님과 전화 면담(2012. 4. 26).

4.3 학생사모의 경남 독서교육에의 기대

앞으로 경남의 독서교육 정책제안과 꾸준한 연구활동, 학생들에 대한 독서교육 서비스 더 활발하게 제공하고, 아직은 미약한 학교에서 학생사모 선생님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서 경남의 교육환경과 질이 보다 높아졌으면 합니다(황혜란 선생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독서인증제, 독서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인 독서교육을 위해 했던 것처럼 정책적인 참여를 더 하였으면 합니다(김은수 선생님).

처음 모임을 만들 때 학교도서관운동, 독서교육운동, 문화운동을 표방하여 외형적으로는 조직이 확산되었지만 아이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품지 못한 듯해서 부끄럽다. 그러나 이 활동을 하면서 동료교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서 경남 독서교육의 발전에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조의래 선생님).

선생님들은 학생사모가 경남의 교육환경의 질적 고양에 기여함은 물론, 독서교육에 정책제안, 연구활동, 학생들에게 좋은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교사들과의 연대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4.4. 학생사모 활동을 하면서 유익했던 점

크게 두 가지가 생각한다. 하나는 2009년에 있었던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했던 ‘독서인증제폐지’운동과 ‘경남 학교 독서교육 조례’ 제정 당시 우리의 의견이 대폭 수용되었던 점이다. 이를 통해 조직의 힘을 보았다. 다른 하나는 소수이고 경력도 짧은 사서교사에게 교육청의 외압이 있을 때 학생사모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교사라는 동류의식과 학교 어딘가에 기댈 데가 있다는 안도감이 든다. 학생사모 활동을 하면서 일반교사와 사서교사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황혜란 선생님).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로서 공교육의 핵심이며 희망을 학교도서관에서 찾았다.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그 반석이 될 것이다(조의래 선생님).

단체의 힘을 느낀다. 개인으론 할 수 없는 것을 단체, 동지의식으로 해결하면서 서로의 의지가 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다(김은수 선생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하니 아무리 힘들고 커다란 일이 생겨도 이겨내고 해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학교에서 혼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이동림 선생님).

학생사모 활동을 하며 유익했던 점으로는 무엇보다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조직의 힘과 그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동류의식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4.5 학생사모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학생사모는 일반교사 중심의 교류공간이다. 그래서 사서교사의 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이는 또한 사서교사의 특수한 처지와 관련 있어 꼭 학생사모 내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기도 하다. 제일 아쉬웠을 때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와 사서직원 배치 문제에 있어 의견이 엇갈렸을 때다. 굉장히 서운했다. 하지만 함께 활동을 해나가면서 학생사모의 일반교사들도 지금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는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이해한다(황혜란 선생님).

자신의 성취만을 위해 뭔가를 배우고 나면 떠나버리는, 개인보다는 단체,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교사들을 만날 때 참 아쉽다(김은수 선생님).

학생사모의 활동범위가 커지고 바빠지면서 회원들 간에 균열이 생기고 소원해진 듯하다(조의래 선생님).

일이 많아지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눌 시간을 가지지 못해 무척 아쉽다(이동림 선생님).

학생사모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점으로는 사서교사로서는 수적으로 많은 일반교사들에 비해 사서교사의 설 자리가 적은 부분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와 사서직원 배치간의 이견이 있을 때 다소 엇갈린 의견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 점, 학생사모 활동을 개인의 이익 여하에 따라 조직을 쉽게 들고 나는 문제와 조직이 커지면서 회원 간의 소통이 약화된 점을 아쉬워하였다.

4.6 학생사모의 강점과 약점

강점으로는 공부와 실천의 장이라는 점이다. 개인적인 공부가 깊어지고 개인 역량들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 활동공간에서 후배들을 활동가로 키워낸 것이다. 반면 약점이라면 활동의 폭이 커지면서 서로 고감이 어렵다. 소통이 약화된 것이 가장 문제다(조의래 선생님).

강점이자 약점인데 학생사모는 점조직이라는 것이다. 점조직이어서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즉 한 사람이 이동되는 대로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강점이다. 반면 점조직이라 의견조율이 어렵고, 소수가 이끌어 갈 수 밖에 없고, 전체 활동이 어려워 서로 공유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황혜란 선생님).

강점만 보이는데요, 초중고 교사와 사서교사, 일반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이라는 것이다(김은수 선생님).

초등, 중등, 사서교사와 함께 어울리니 우리 것(초등) 외의 다른 것(중등, 사서)이 보이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다(이동림 선생님).

학생사모의 강점은 무엇보다 공부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 뿐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또한, 강점이자 약점인데, 점조직이

기 때문에 조직의 확산에는 기여하나 반면 전체적인 활동 공유가 어려운 점을 들었다.

4.7 학생사모의 계획과 전망

해 오던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경남의 여러 지역으로 소모임 확대,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가 되었으면 한다(김은수 선생님).

개인적으로 사서교사로서 도서관과 독서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이다. 조직적으로는 학생사모 소모임활동이 전국에 홍보되어서 각 지역에도 우리 지역처럼 자율적인 교사조직이 생겼으면 한다(황혜란 선생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행복한 책읽기를 할 수 있는 학교, 전담 전문인력이 있고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조의래 선생님).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이제는 옆에 동료와 가족에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겠다. 그리고 언제든 자리를 박차고 나와 처음부터 시작하는 후배와 살갑게 만나고 싶다(이동립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학생사모의 활동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이며, 나아가 학생사모의 사례처럼 교사들의 자생적인 공부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보다 큰 비전으로는 학교도서관에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학교도서관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교육의 본질이 구현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4.8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4.8.1 교사의 입장

교사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김은수 선생님).

모든 교사가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름의 방법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 독서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 '얼마나 많이 읽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가로 변해야 한다. 초등생들에게 특히 책 맛을 알기, 즉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 초등생들에게 '책을 좋아하는 친구'하고 손을 들게 하면 1학년은 전원 다 든다. 그런데 6학년들은 1/3 정도 든다. 독서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 현상은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독서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며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책 맛을 잘 모르던 1학년들에서부터 독서교육을 제대로 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왜 이런가?

이런 현상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교사가 책을 모른다는 것이다. 모르는 데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안 읽어도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하나는 어린이책, 특히 그림책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독서교육 방법이 잘못되었다. 많이 읽히려는 양적인 방법이 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독서는 독해 후에 내면화해서 언어화(표현) 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 스스로 철학적 사고, 즉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스템에 순응해서 스스로 하수인 노릇을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원본인 책은 물론 철학적·인문학적 사고를 돕는 책들도 거의 안 읽는다. 문화는 전이되는 것인데,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문화를 즐기게 된다(조의래 선생님).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한다. 독서흥미와 독서습관 나아가 정보활용 능력도 다르다. 일례로 고등학교에 있을 때 신입생이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는 분명 중학교 때 사서교사가 있었던 학교에서 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중·고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초등저학년 때는 독서흥미와 독서습관, 초등고학년에는 그 위에 정보활용교육,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과 더불어 보다 독서를 더 깊이 하고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정보활용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초등 저/고, 중등, 고등)을 사서교사가 초·중·고로 연계하여 교육하고 학생들의 독서와 정보활용능력이 변화된 양상을 종적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현재는 프로젝트 학습법(IR)으로 교과교사와 도서관활용협력수업을 진행 중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한다(황혜란 선생님).

학교도서관을 꾸준히 관리해 줄 사서교사가 필요하다. 사서교사에 대한 일반 교사의 인식도 좀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둘의 입장은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최상의 독서교육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이동림 선생님).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책을 즐겨 읽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아이들에게는 독서 모델이 필요한데, 책을 즐겁게 읽는 교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독서로 준비된 교사가 아이들과 독서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서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간의 차별화되기 위해서 독서교육 너머 정보활용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서비스 영역을 부단히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독서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정보활용교육이 필요하며, 교과협력 수업이 필요한데, 이를 담당할 사서교사가 학교 내에서 확실한 입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8.2 교육정책의 측면

일제고사 연합협력평가로 인해 성적이 학교평가에 상당히 반영되는 시스템이 있는 한 독서가 들어설 자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를 위한 교육 즉 일반적인 형식의 연수보다는 경기도 교사독서연수와 같이 직접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한다(김은수 선생님).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를 꼽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이 아이들 책을 읽자. 둘째, 모든 연수과정, 특히 교장·교감 연수에 도서관과 독서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조의래 선생님).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이 변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변하지 않는한 지금 교육정책에서 중요시하는 자기 주도적학습, 교육역량강화,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도 물론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서교사 수가 많아져서 사서교사의 서비스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한다(황혜란 선생님).

단시간에 눈에 보이고, 수치화하고, 실적을 보려는 정책은 버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어야 한다. 교사에게 책 읽을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e-book, 스마트 교육을 한다고 종이책과 멀어지게 하는 정책을 거두어야 한다(이동립 선생님).

교육정책 입장에서 학교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학력향상을 위한 성적 반영시스템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자기주도 학습, 교육역량강화, 입학사정관제에 도움이 되는 독서교육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어린이책을 읽어야 하고, 교장·교감 연수에 반드시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연수의 방법도 형식이 아닌 실제 책을 읽고 적용할 수 있는 체험식 독서교육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4.9 기타 위에서 못다한 이야기

황혜란 선생님은 학생사모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학생사모운동이 보다 성숙해지려면 지금보다 사서교사수가 많아야 한다. 사서교사는 소수이고, 경력도 짧아 학생사모에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역부족이다. 더구나 현재 육아휴직, 거리상의 문제로 학생사모 활동하는 사서교사는 불과 2~3명뿐이다. 따라서 사서교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 듯하다. 사서교사는 그 출발이 동일하지 않다. 영양교사나 보건교사처럼 단일한 자격증으로 학교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네 가지 층위를 이루고 있다. 사서교사/기간제교사(사립), 사서직원(무기/상용), 무자격 도서관직원(인턴교사/행정직)이 그것이다. 따라서 모두 입장이 다르다.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도 도서관직원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의 전담직원 문제가 표류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문헌정보학 내에서 내부합의가 필요한 듯하다. 둘째, 교과서에 도서관 관련 내용이 실려야 한다. 혹은 이미 개발된 <도서관과 정보활용>이 선택교과로 되어야 한다. 셋째, 더 이상 이벤트성 행사위주의 독서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사모 활동에서 일반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위해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너희 사서교사들은 뭐하나?는 편견을 종종 듣는다. 그래서 사서교사 임용 후부터 계속 그 문제로 고민해왔다. 하나 관찰된 것이 있다.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을 일로 접근하고, 담당교사는 재미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사서교사는 궁극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운동을 즐길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학교도서관의 임무를 혼자서 수행하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책임이 앞선다. 그런데 담당교사는 일단 본인들의 고유 업무인 담당교과 혹은 담임 업무가 있고 학교도서관 업무는 일종의 담보된 교육 상황의 탈출구, 대안으로 여기기 때문에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발이 다르다. 그렇다고 마냥 담당교사를 쫓아갈 수도 없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현재 학교 내외부의 환경에서 내가 교사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진정으로 사서교사인 나를 다른 사람들이 교사라고 인정하게 되려면 아이들과의 접점을 넓혀야 한다. 현재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정규적인 수업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조의래, 이동림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사서교사와 후배교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학교도서관의 주체는 사서교사이다. 그래서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제도적·인식의 장벽으로 사서교사가 전면적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있어 사서전담직원이 배치되었다. 그 문제로 사서교사와 일반교사 간 서로 괴리감이 생기면서 소원해졌는데, 아픔 하나하나 보듬지 못해서 미안하다. 일각에서 현직 사서교사 더러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자기 일인데 왜 싸우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본인이 사서교사인데, 사서교사 배치해 달라고 싸우는 어려운 일 아닌가?, 만약 사서교사가 싸운다면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싸워야 한다. '내 한자리 내어놓고 열을 얻는다'는 각오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제 막 교사를 시작하고 가정을 꾸린 이들도, 어떻게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싸움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무관한 우리가 해야 현실적이다(조의래 선생님).

학교에서 도서관이나 독서교육 업무가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권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도 말없이 따라와 주는 동생들이 있어서 고맙고 든든하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다. 새 학년이 되어 도서관이나 독서교육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는 동생들에게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싶다(이동림 선생님).

IV. 결론 및 제언

이상 경남지역에 자생교사조직인 학생사모의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및 지역문화운동 활동을 살펴 보았다. 학생사모의 활동을 따라가면서 사서직과 문헌정보학계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열정이었다.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조직화를 도모한 것이 학생사모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공부에 대한 열정,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지금 그들을 살아있게 한 든든한 힘이였다. 학생사모의 활동은 공부모임에서 시작해서 배운 것을 남들과 나누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또 동료 교사들을 조직해서 공부모임을

만들고, 그 경험에서 쌓인 것을 지역사회와 나누며, 연구활동으로 독서교육의 토대를 다져나갔다.

경남지역에서 학교 독서교육의 선두 그룹은 단연 학생사모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학생사모의 설립배경과 활동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어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교 독서교육 조직 설립에 학생사모의 사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학교도서관과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서교사의 세력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운동에서 사서교사가 주체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지원군은 교사집단이라는 것이다. 교사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조직화되었을 때는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처럼 강건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교사들도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다른 노동조합과 시민세력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역사적인 과업을 일구어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의 제자리찾기 운동도 사서교사의 힘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이를 지원할 세력은 학교도서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동료교사들과 기적의도서관을 일구어낼 수 있었던 시민세력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설 중심으로 개선된 학교도서관일지라도 그 성과를 일구어낸 이들은 뜻있는 학부모와 각성된 시민세력들이었다. 이러한 열성적인 시민들의 노력 위에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은 학교도서관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둘째, 학교도서관운동에 있어 스마트 파워를 조직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파워와 소프트웨어 파워²¹⁾가 주도를 하였다. 그러나 향후 학교도서관운동에는 스마트 파워가 등장해야 한다. 2000년 이후 학교도서관운동에서 하드웨어 파워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면, 소프트웨어 파워는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들, 뜻있는 학부모와 시민세력들의 연대와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과 <학도넷>도 만들고 『학교저널』도 만들어 학교도서관운동의 공간적 지평을 전국으로 넓혀 놓았다.

이제 학교도서관에 스마트 파워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 파워란 '신뢰와 설득의 소프트 파워'와 '강압과 응징을 내세운 하드 파워'를 결합한 형태를 띤다.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

21) 『권력의 미래』 (조지프 나이 지음, 윤영호 옮김, 세종서적, 2012)에서 소프트 파워란 외교, 경제 원조, 민간 교류 등 '신뢰와 설득'의 영역이다. 하드 파워는 군사력으로 대표된다. 이같은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조화가 바로 스마트 파워다. 다시 말해 스마트 파워란 강압과 응징을 앞세운 하드 파워와 설득과 유인을 내세운 소프트 파워의 조합인 것이다. 결국 저자는 21세기의 스마트 파워란 권력의 극대화나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 분산과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Rise of The Rest)'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자원을 성공적인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하드 + 소프트 파워... 이젠 '스마트 파워'다", 문화일보(2012. 5. 11)). ; 김상배,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집, 제 49집, 제4호(2009), pp.7-33. 스마트파워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과 연관된 정치권력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정치 분야 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거나 입장에 따른 오류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과 맥락이 다르므로 생략하고, 다만 학교도서관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하드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와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며, 학교도서관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찾기 위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스마트 파워라는 용어를 차용하고자 한다.

합이 필요하다. 즉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교육적 자원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을 전국적 차원에서 ‘교육 혁신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연후 지자체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전국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40년 전 몇몇 인물중심으로 펼쳐진 경남의 학교도서관운동 세력들이 아니라 조직화된 사서교사집단이어야 한다. 결국 학교도서관을 끝까지 지킬 이들은 사서교사들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전성기였던 학교도서관은 교과교사들이 강습을 통해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근대 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경남지역 학교도서관 운동에 주도적이었던 인물(당시 김두홍 경남 교육청 장학사, 이윤근 경남교육감)이 학교도서관을 떠나게 되고, 이어 1970년대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학교도서관은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다. 이럴 때 사서교사를 하던 일반교사들은 대부분 사서교사직을 버리고 교과교사로 이동했다.²²⁾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학교 독서교육은 학교도서관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독서행사를 즐기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교도서관의 목적은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시설로서,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교수학습 매체를 갖추고 각 교과 영역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적·인지적·정서적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자원을 선별하여 교과교사와 협력을 통해서 원활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의 핵심 교육자원이다. 이때 자원이란 단순히 매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모의 잘 갖추어진 시설,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자료,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모두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담인력의 여러 한계로 인해 다독, 독서퀴즈, 이벤트성 독서행사 중심으로 기울어진 학교 독서교육이 활발한 교과연계 독서와 문제해결력에 도움이 주는 정보활용교육으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것이다.

넷째,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과 사서교사의 활동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영양교사, 보건교사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서교사를 길러낸 문헌정보학계가 우선 자정해야 한다. 앞서 황혜란 사서교사의 지적은 아주 정확하고 옳다. 영양교사와 보건교사는 동일하게 2급 정교사들로 학교생활에서 교과교사들과 출발점이 동일하다. 반면 사서교사는 다른 비교과교사와는 달리 자격유형에 상관없는 다양한 인적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학교 내 교사집단과 출발점이 다르고 이로 인해 전문성이 위협받으며 학교도서관 정책입안자에게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사

22) 김종성, “1960년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겨울호), pp.493-531. ; 김종성, “1970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형 변화,” 도서관, 제54권, 제1호(1999, 3), pp.41-63 ;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 쇠퇴의 심층 구조와 교육 왜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 4호(1999, 12), pp.299-326.

서교사들은 다양한 층위-사서교사, 기간제사서교사, 사서직원(무기계약/상용계약), 무자격도서관 담당직원(인턴교사/행정직원)-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를 통일적으로 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문헌정보학계에서 내부적 합의가 있어야겠다. 또한, 사서교사들은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조직적 활동을 도모하고, 호흡을 길게 해서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비록 학교도서관 현장에서도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각자가 가진 역량들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증명하는 실험을 해야 한다. 황혜란 사서교사의 말대로, 연구조직을 만들어 초·중·고로 연계하여 사서교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종단적인 연구를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문헌정보학계와 학교도서관 현장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무엇보다 그 지원세력인 학교도서관담당교사, 뜻있는 학부모와 시민세력들과의 조직적인 연대를 통해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찾고 학교 독서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란다.

참고문헌

〈논문자료〉

- 김상배.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 중견국 네트워크 권력론의 시각.” 국제정치논집, 제49집, 제4호(2009), pp.7-33.
- 김정근·김종성. “현단계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한 연구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1997. 9), pp.23-51.
- 김종성. “1960년대 경상남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29집(1998. 겨울호), pp.493-531.
- 김종성. “1970년대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의 지형 변화.” 도서관, 제54권, 제1호(1999. 3), pp.41-63.
-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 쇠퇴의 심층 구조와 교육 왜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9. 12), pp.41-63.
- 제현경. “학부모가 본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현실과 활성화 방안.”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4차 도서관정책 포럼 자료집(2011. 12), pp.29-37.

〈통계 및 법률자료〉

- 경상남도교육청. 2011 경남교육통계연보. 경상남도교육청, 2012.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05-2011. 한국도서관협회, 2006-2012.
- 경상남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경상남도 조례 제3573호(2011. 2. 10).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9470호 일부개정(2009. 3. 5).

〈신문기사〉

“청소년, 스마트폰에 빠져 책 더 안 읽어.” 경향신문(2012. 5. 8. 16면).

“하드 + 소프트 파워… 이젠 ‘스마트 파워다.’” 문화일보(2012. 5. 11).

〈면담자료〉

황혜란 선생님 대면 면담(2012. 5. 4).

김은수 선생님 서면 면담(2012. 5. 6).

박종훈 선생님 대면 면담(2012. 5. 7).

이동림 선생님 대면 면담(2012. 5. 17).

조의례 선생님 대면 면담(2012. 5. 17).

〈인터넷 사이트〉

경남교육포럼 홈페이지. <<http://www.gnef.org/>> [인용 2012. 5. 14].

학교도서관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학생사모) 홈페이지. <<http://edunpark.com/>> [인용 2012. 5. 18]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홈페이지. <<http://schoollibrary.eduhope.net/>> [인용 2012. 5. 18].

전국교직원노조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 [인용 2012. 5. 20].